

소르본느大學의 特性

朴 善 子

(慶尙大 哲學科)

I

Sorbonne 대학의 특징에 대하여 글을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한참 망설였다. 11년간 그곳에 몸을 담고 학생의 신분으로 공부를 해 왔지만 과연 필자가 그 학교의 내용을 가식 없이, 또 손색 없이 외부에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잘 알고 있는가 하는 자문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조그마한 청을 거절하자니 너무 인색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일단 받아들이긴 했으나,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필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색다르게 느낀 것들 중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밝혀 두며, 한편 필자의 아직 미미한 표현 등에 대하여 독자분들의 너그러운 양해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러이 Sorbonne 대학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릴까 한다.

1252년에 세워진 Sorbonne 혹은 신학대학은 후에 Paris-Sorbonne 로 되었는데, Sorbonne 라는 이름은 그 학교를 설립한 사람인 Robert de Sorbonne 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 하며 또 Robert de Sorbonne 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난 마을의 이름을 따서 그의 영세신부가 지어 준 것이라 한다.

맨처음 소르본느에는 36명의 박사가 속박하며 소르본느를 책임지고 또한 대표하고 있었다. 그

들은 아침 저녁으로 6시간의 수업을 가르켰다 한다. 그 당시의 소르본느는 Paris 신학의 총집결체라 할 수 있었고, 다른 대학에 있는 사람들도 신학박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 행사를 소르본느에서 치르게 되어 있었다. 그 후 1452년에 Cardinal d'Etouteville 에 의해서 대학이 재형성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문계통의 모든 분야가 편성되었고 특히 역사, 철학, 문학비평 등의 분야에 더욱더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문화면에 큰 관심을 두었다. 그런데 1968년을 기점으로 현재의 소르본느는 조금 세분화되었다. 나누어진 이 학교들 중에 Paris IV (Paris-Sorbonne, 파리 제 4 대학)만이 그 전부터 내려오는 소르본느의 인문주의적인 전통을 고수하고 있고, 고전적인 면을 그대로 보유하면서도 현대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성적을 지닌 Paris-Sorbonne 내의 활동 중 하나로는 라틴어와 그리이스어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서양에서 제일 높은 수준에 있다 한다. 현재 철학의 경우는 신학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며 탁월한 교수진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석사·박사과정의 세미나를 듣는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학, 법률, 정치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철학 세미나를 듣고 있고, 석·박사논문들을 쓰고 있음

을 주목할 수 있으며, 활발한 정신적 활동의 분위기에 흠뻑 젖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II

그러면 이러한 역사를 지닌 소르본느의 어떠한 체제가 학생들을 그렇게 자율적으로 배양시키며, 인재들을 길러 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입학제도에 대하여 살펴볼 것 같으면 입학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치러지는 그런 형식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서류전형(dossier)에 의해서 선별된다. 즉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때 치르게 되는 baccalauréat(바카로레아)의 성적 내지 분과별 baccalauréat에 의해서 선발하고 있다(바카로레아는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에서 치르게 되는 고시로서 이 시험에 합격되어야만 고등학교 졸업자격이 부여되는 동시에 그것을 소지하는 자만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취직도 할 수 있다. 이 시험의 합격률은 전원의 60%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그러나 외국인이 대학 1학년에 입학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수준의 어학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입학이 된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이 없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입학시에 韓貨 20,000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학생 본인들이 1년 동안 사용하는 것들, 즉 도서판비 등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조건 속에서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춘 학생들을 인원의 제한 없이 모두 받아들인 후에 그들에게 다 대학교육을 시켜 사회에 배출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입학시에 입학시험이 없는 대신에 학기마다 치러야 할 시험제도가 철저하다. 소르본느 중에서도 각 과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필자가 공부하고 있었던 철학과를 예로 들면 1년에 평균 2/3에 해당하는 학생이 시험에 의해 탈락되고 있다.

고등학교 과정이 우리보다 1년이 많기 때문에 대학과정을 3년으로 계산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 1학

년의 교양과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공부하게 된다. 이들 대학과정은 원칙상 3년으로 되어 있고 그것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1,2년생들은 D.E.U.G(Le Diplôme d'Etudes Universitaires Générales; 대학 일반과정을 말함)를 준비하게 하고, 2년 동안 따야 하는 12U.V.를 획득한 학생에게는 그 Diplôme을 수여한다. 그리고 나머지 1년은 Licence(대학 전문과정)라 하여 3개의 Certificats(자격증)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대학과정이 3년이긴 하나 그것을 3년에 마치는 학생은 극소수이고 대부분 4년에 걸쳐 해당량의 U.V.와 Certificats를 따고, 그래야만 학사증을 획득할 수 있다. 만약 4년 동안 그것들을 모두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게 총장의 특허(dérogation)가 없는 한 나머지 학생들은 모두 탈락되는 것이다(여기서 U.V.라는 것은 Unité de Valeur를 의미하며, 그 과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을 말한다). 그러므로 보통 4년 후에 학사증을 획득하는 학생들의 수자는 입학시의 수자에 비하여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탈락시키는 과정은 대부분 대학 1,2학년 때(대학 일반과정 때) 거의 다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평가제도는 절대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해마다 졸업인원수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대학 3년째 Licence 과정은 대학 일반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U.V.를 획득한 학생에 한해서만 허용이 되며 Paris-Sorbonne에서는 Certificat 제도가 있어서 3개의 Certificats를 획득해야 비로소 학사증을 받게 되는데 그 3개의 자격증 선택은 전공분야에서 학생 각자의 선택에 맡긴다. 그러던 그토록 많은 수자의 학생이 탈락을 당해야만 하는 엄격한 시험제도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시험은 écrit(필기)시험과 oral(구두)시험으로 나누어져 있고 écrit에 합격한 학생에 한해서만 oral 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며, 이 두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이어야만 최종 합격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또 시험방식은 7~8 페이지 정도의 소논문 작성이니까 200자 원고지로 약 25~30 페이지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 주어진 4시간 동안에 2문제 중 1문제 택일로 그것을 작성해 내야 한

다는 일은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1년간 배운 강의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texte 외에 담당 교수가 지시해 주는 책들을 모두 공부하여 그 내용을 머리 속에 투명하게 모두 지니고 있지 못하면 갑자기 주어질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4시간에 걸쳐 30페이지 정도의 철학논문을 작성한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통 5월말에서부터 시작되어 6월말에 끝나게 되는 시험기간 동안 학생들은 거의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지내게 된다. 거기에서 시험 결과 발표날이 되면 꼭 쉰 주먹속에 식은 땀이 흐름을 의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대학 입학시험 때에 치려야 할 고동을 각 학기마다 치려야 하는 것인 셈이다.

위에서 설명한 이러한 최종시험 이외에 학기중에 몇 차례(3~4회) 실시하는 Contrôle(일종의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다. T.D.(Travaux-dirigés)시간에서 texte 1권을 마칠 때마다 치르게 되는 시험으로 여기에서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사람은 계속 이 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후에 최종시험 때에 가산되어 나타난다. 즉 합격선이 10점이라면 12점을 획득한 학생의 경우는 최종시험에서 8점을 얻어도 이 Contrôle에서 획득한 점수인 2점이 가산되어 최종시험 écrit에 합격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Contrôle에서 합격선을 넘어서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최종시험이나 합격하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Contrôle 때에는 학생의 답안지를 담당 교수가 일일이 교정하여(형식면에서나 내용면, 어학, 문법 등) 학생에게 되돌려 주어 논문작성 연습을 시키는 과정도 병행하게 된다.

III

학생들의 참된 실력 배양과 그들의 진정한 자율성을 길러 주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엄격한 시험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교수진에 의한 합리적인 교육방법이 있음을 잊어서도 안 될 것 같다. 그 학교의 교수진에 대해서는, 다시 말하여 그 학교의 교수가 되기까지 그들이 어떠한

과정의 어려운 실력 테스트를 거쳤는가에 대하여는 독자들이 이미 모두 알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는 생략하기로 하고 단지 그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배양시키는 교육방법에 관해서만 미중 살펴보기로 하자.

그곳 대학은 일반과정 때에는(1,2학년 때) 12 U.V.를 공부하고 또 그것을 시험에 합격하여 획득하여야만 하는데, 그 중의 한 U.V.로 역사철학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역사철학이라는 한 U.V.는 Cours Général(일반강의)과 Travaux-dirigés(T.D.: 분배강의)의 2종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U.V.마다 다 그러하다.

그러면 우선 Cours Général은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본 후에 T.D.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역사철학에서의 일반강의는 1주일에 1번씩 개설되는데 한 학년 전원이 모여서 듣는 강의를 말한다. 다시 말하여 철학과 1학년에서의 역사철학 시간이라 하면 1학년 전원이 한 강당에 모여 듣는 역사철학 강의를 말하며, 주제로 하나의 철학자를 택하여(해마다 바뀐다) 그의 철학을 1년에 걸쳐 강의한다. 이 시간에 주는 과제로는 평균 1주일에 1~2권의 texte를 읽는 것이다.

그리고 분배강의는 그 학년에 해당하는 역사철학 수강자들을 여러 반으로 분배하여 각각 다른 교수들이 거의 다른 시간에 강의하는 것을 말한다. 즉 1학년 역사철학이라 하면, 1학년 학생들이 3~4명의 역사철학 교수들의 강의 중에서 자기 적성과 시간에 맞는 교수에게 신청을 하여 강의를 듣는 방법으로서 보통 3~4개반으로 나누어지고 강의 시간과 날짜도 대부분 다르다. 그 T.D.시간은 1주일에 3번(90분씩) 열리며 한 작가에 대하여 하나의 주제를 택하는 방법으로 1년에 3~4권의 texte를 강독하게 되며(3~4명의 작가) 그 시간에는 학생들의 질의, 토론도 잠시 갖게 될 뿐 아니라, 앞의 시험제도에서 이야기한 바 있는 Contrôle를 각 texte가 끝날 때마다 갖게 되고 교수는 그것을 일일이 교정하여 학생들에게 돌려주므로 배운 texte를 학생들로 하여금 철저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논문작성 연습도 시키는 셈이 된다. 그런데 이 T.D. 시간에는 교수의 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

들의 발표(Exposé)도 있으며, 강의시간에 공부하는 texte 외에 그 시간의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룬 다른 작가들의 책을 학생들에게 안내해 주어, 학생들은 그것들을 모두 공부해야만 시험에 온전히 합격할 수 있게 된다(보통 1주일에 1~2권의 texte). 한 U.V.에 대한 공부량이 이리한데 1년에 6 U.V.(이와 똑 같은 방법의 것)를 공부해야 한다면 학생들은 눈코 뜰 새 없이 책 속에서만 살아야 한다. 그들에게 친구들을 여유롭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란 방학이나 되어야 허락되어지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모습은 거의 항상 작업복 차림에 학문탐구에 몰입해 있는 표정들이다.

IV

그러면 그토록 엄격하고 치밀한 시험제도와 강의체제가 가져오는 결과는 과연 무엇일까? 이 점에 대해서 필자가 한 외국인으로서, 불탄서인 아닌 불탄서인으로서 학교생활을 해가며 그들과 똑같은 취급과 대우를 받으며(특히 시험제도 면에서) 겪고 관찰한 점만을 밝혀 보면 대강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그 엄격한 시험제도가 소르본느의 학생들에게 학습 면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여타 다른 면에서도 '참됨 의미에서의 자율성'을 길러 주고 있음을 목격했다.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도 그들은 스스로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학습에 정열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학원내의 생활 속에서 도태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들이 목적으로 하는 바를 실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출석률과 수업태도 또한 그러하다. 소르본느에는 애초에 출석부라는 것조차 없다(물론 과 비서실에는 학생들의 등록카드가 비치되어 있다). 출석을 부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정말로 특별한 일 외에는 결석할 수가 없으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결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시간 전에 강의실 앞에 도착하였다가 좋은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강의를 듣는 그들의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강의내용을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나팔통처럼 열고, 부지런히 그것을 속기하기 바쁘다. 교수의 강의를 끝나고 나서 강의내용에 대한 질의토의 시간에 그들의 태도는 열렬하다. 그러면서도 그 속에 차분히 깔린 질서와 예의 있는 태도에 필자는 항상 감탄하곤 했다. 그러한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기인되어진 태도들일까라고 생각해 볼 적에, 아마도 그것은 고차원적으로 발달된 불탄서인 고유의 개인주의에서 오는 것임이 틀림없으리라는 느낌이 든다. 개인주의가 발달된 만큼에 비례하여 그들은 그만큼 자존심이 강하며 타인에 대한 존중심 또한 주목할 만하다. 스스로의 인격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발언, 교수의 얼굴을 붉히게 할 수 있는 무례한 언사 등을 11년간의 학습기간 동안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이 무엇보다 인상 깊어 남아 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일은 공부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물론 어느 정도의 일정한 자격소지자이긴 하지만) 문을 대폭 열어 주어 그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입학제도이다. 자유와 기회를 마음껏 학생들에게 열어 준 다음에 진정으로 노력할 줄 아는 사람, 그리하여 그 주어진 공부를 거뜬히 소화시켜 낼 수 있는 능력 소지자만이 그 속에서 선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교육제도는 결국 당당한 실력을 갖춘 학생에게만 학사자격을 부여하여 사회에 배출시키는 결과가 되는 동시에, 사회에서는 학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만만치 않은 눈으로 대하게 될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르본느의 앞문은 활짝 열려져 있으나 나오는 뒷문은 닫혀져 있다"는 표현을 쓴다.

그렇다면 가정형편이 불우한 학생들의 경우는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공부해야 할텐데 그 어려운 공부를 그들은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그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는 질문도 생긴다. 그러나 이 점 또한 그들은 거의 완벽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다. 즉 매학기마다 치르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형편이 힘든 학생은 일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면

인원수에 제한 없이 각 학생에게 그들의 형편에 비례하는 액수의 장학금이 정부에서 제공되어지고 있다(대강 학생 한 명의 1년 생활비 정도가 1학기에 걸쳐 지급되어지고 있다). 또 그 다음 해에도,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성적이 이상이 없이 시험에 계속 합격만 한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학생 자신만 공부에 뜻이 있고, 자기 자신만 열심히 한다면 아무런 근심 없이 공부를 마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석사·박사과정도 A학점 이상만 받으면 아무런 걱정 없이 학업을 끝까지 해 나갈 수 있다(석사·박사과정에서는 장학제도가 좀 달라서 이때부터는 학생 형편과 무관하게 성적이 A학점 이상이면

많은 액수의 정부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불탄서 사회의 뒤적제도는 모두 시험제도이므로(개인회사 같은 종류는 약간 예외적이다. 그런 곳에서는 개인적인 관계 등이 작용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사회의 일 자리도 바로 연결되어지고 있음이 너무나 확실하므로 학생들은 앞으로 자기들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공부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와 사회생활은 별개의 것이라는 관념을 가질 수 없고 자기들이 선택한 전공분야 속에서 다음껏, 힘껏, 자기들의 노력과 실력을 발휘하며 학창시절을 보내는 근면성과 풍성함을 볼 수 있다. *

〈投 稿 案 內〉

“大學教育”誌 第 20 號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公募합니다.

1. 內 容—大學教育에 관한 論說, 각종 學術情報, 現場提言, 體驗談 및 新刊紹介 등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글

① 論 壇	② 學科別 教育課題
③ 나의 學問과 人生	④ 現場提言
⑤ 教育資料	⑥ 新刊紹介
2. 枚 數—200字 原稿紙 35枚, 45枚 또는 54枚(⑥은 13枚 또는 22枚)
3. 期 限—1986年 1月 20日
4. 稿 料—枚當 2,500원(채택된 原稿에 한함)
5. 提出處—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韓國大學教育協議會(T. 783—3891, 3067)
6. 附 記
 - ① 國漢文을 混用하되 漢字를 制限하고 필요할 때에는 原語를 併記해 주십시오.
 - ② 論壇原稿에는 반드시 200字 이내의 要約文이나 拔萃文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제출된 원고는 編輯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게재합니다.